



제4장 근대

제1절 동학농민봉기와 광양

광양에는 1893년 이전에 이미 동학이 들어와 있었다. 1893년 4월 보은 취회에 순천·광양의 동학교인이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후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의 농민군은 박낙양의 지휘하에 백산봉기에 참여하였으며, 전주화약후 이들도 대부분 귀향하였다. 이들 외에도 전북 금구 출신의 김인배 등이 농민군을 이끌고 순천에 들어왔다. 전라좌도를 통치하던 김개남의 핵심인물인 김인배(金仁培)는 순천에 영호도회소를 두고서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였다.¹⁾ 이 글에서는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를 중심으로 광양지역의 동학농민봉기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전남 동부지역의 동학 수용과 확산

19세기 후반 대내외적 위기상황 속에서 농민의 불안을 해소해줄 새로운 사상이 제기되었다. 다름아닌 동학(東學)이 그것이다. 알다시피 동학은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1824~1864)에 의하여 창시되었는데, 당시 방황하는 조선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었다. 동학은 우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시천주 사상은 조선왕조 사회에

1) 김양식, 「전남동부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영호도회소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23, 1995. 홍영기, 「제6편 동부지역의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를 중심으로-」, 『전남 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제4절 동학농민혁명」, 『순천시사』 정치·사회편, 1997.

2) 신일철, 『동학사상의 이해』, 사회비평사, 1995, 23~7쪽.



사진2-82 :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

서 소외당한 평민과 천민들에게 만인평등의 사상과 근대적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였다.²⁾

다음으로 서양과 일본세력의 침투를 경계한 점에서 민족주의적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후천개벽론(後天開闢論)을 통하여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강력히 희망하였다. 이는 생존의 위협 속에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민중들에게 전혀 새로운 사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 결과 동학은 억압과 수탈의 굴레아래 신음하는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수용되었다.

그러면 언제부터 동학이 전라도에 수용되었을까. 하지만 동학이 전라도 지역에 수용되고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그저 막연하게나마 1861년을 전후한 시기에 전라도에 처음으로 동학이 전해졌으리라 추정한다. 그것은 최제우가 경주(慶州)에서 동학을 전파하던 중 주위의 탄압을 피하여 남원의 은적암(隱寂菴)에서 약 8개월간 수도와 포교를 한 사실로써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1864년 최제우의 죽음으로 다소 위축되었다가 1880년대 말부터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형(崔時亨)이 전주와 삼례(參禮) 등지를 순회하던 시기와 전북출신 동학교도가 최시형을 면담한 시기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훗날 전봉준과 김개남 등과 같은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동학에 입교하였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 1860년대 초와 1880년대 말을 전후한 시기에 동학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수용·확산되었다.



사진2-83 : 동학의 2대교주 최시형

그렇다면 전남지역에는 언제부터 동학의 포교가 이루어졌을까. 1861년 최제우가 남원에 머무른 시기와 관련될지, 아니면 1880년대 후반 최시형의 활동과 연관되는지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단, 적어도 1893년 이전에 이미 이 지역에는 믿음의 깊은 동학교인이 많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893년 4월 보은취회에 전남의 동학교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전남지역은 1880년대 말에서 1890년대 초에 동학교인이 집중적으로 증가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전남 동부지역의 경우에는 1890년을 전후하여 동학교인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나 한다. 예컨대, 광양출신의 조두환(趙斗桓)과 전남 고흥출신

의 송년섭(宋年燮)은 1890년에 각자의 고향에서 입도하였다. 이들은 모두 20대의 나이로 동학에 입교하였으며, 보은취회와 동학농민혁명에 적극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그후 이들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 해당 지역의 유력한 천도교 지도자로 성장, 활동하였다.³⁾ 이처럼 이 지역의 유력한 동학지도자들은 대체로 1890년을 전후한 시기에 입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당시 농민들은 동학이라는 새로운 종교에 의해 조직화되어 점차 거대한 사회세력으로 부상되었다. 이들은 강력한 조직을 바탕으로 교조신원(敎祖伸冤)을 요구하였는데, 1892년 봄부터 접주 서주인(徐周仁)·서병학(徐丙鶴) 등이 주도하였다.⁴⁾ 이들은 지방 이서(吏胥)와 군교의 박해로부터 교도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해 11월과 12월에 각각 공주와 삼례 취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자, 동학교주 최시형은 1893년 5월 수만 명의 동학도들을 충청도 보은(報恩)에 모이게 하여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이른바 보은취회가 그것인데, 주로 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 각지에서 약 2만명의 교도가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동학교단은 교조신원뿐만 아니라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표방함으로써 정치운동과 민족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⁵⁾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의 동학도들도 보은취회에 적극 가담하였다. 순천 등지 동학교인 260여 명이 보은에 모여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활동하면서 국왕의 비답(批答)을 받아야만 내려갈 것이라고 공언한 점⁶⁾으로 보아 그러하다. 이는 이들이 혈기 방장한 20대의 나이에 동학에 투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보은취회에 참여한 동학교인과 농민 가운데 광양을 비롯한 전라도 출신들이 숫자적으로 압도적이었으며, 그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저항적이었다고 양호선무사 어윤중은 정부에 보고하였다.⁷⁾ 그것은, 전라도 지역의 농민들이 정부의 가혹한 수탈로 말미암아 반정부적인 감정이 타도에 비해 더욱 깊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동학의 종교적인 면보다는 정치적인 면에 더 관심이 많았고, 현실의 여러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였다.

하지만 수만 명의 동학교인이 참여한 복합상소와 교조신원운동은 정부 측의 무성의로 인하여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오히려 동학교인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관리들의 탐욕은

3) 이상은 김재계, 「고금암송년섭씨(故琴庵宋年燮氏)를 추도(追悼)함」(『천도교회월보』 252, 1931. 12)과 허남호, 「고이암조두환씨(故蕭庵趙斗桓氏)를 추도(追悼)함」(같은 책 279, 1935. 9) 참조.

4) 이광린·신용하 편,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근대편, 일지사, 1984, 125쪽.

5) 위와 같음.

6) 『동학란기록』 상, 국사편찬위원회, 1959, 119쪽.

7) 위의 책, 123쪽.

일반 농민의 생존권마저 앗아갈 지경이었다. 특히, 비옥한 평야가 위치한 전라우도(全羅右道) 지역의 농민들이 수령의 탐학과 아전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전라우도 고부(古阜) 농민들은 수령의 탐학과 이서배의 가렴주구를 견딜 수 없자 군수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호소는 번번이 묵살되었으며, 오히려 진정서를 제출한 대표자를 잡아 가두기까지 하였다. 당시 고부군수였던 조병갑(趙秉甲)은 당시 풍양 조씨(豐壤趙氏) 세도가로서 1892년말 고부군수로 부임한 이래 갖가지 명목으로 농민들을 괴롭혔다. 특히 물의를 빚은 것은 만석보(萬石漕) 아래에 새로운 보를 쌓아 농민들에게 수세(水稅)를 강제로 징수한 것이었다.

이에 농민 1천여 명은 고종 31(1894)년 2월에 동학접주 전봉준의 지휘 아래 고부군아를 점령하였다. 이들은 모두 흰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죽창과 몽둥이를 들고서 봉기한 것이다. 이들은 군아에 보관중인 무기를 탈취하고 불법으로 수탈한 곡식을 빼앗아 빈민들에게 분배하였으며, 원성의 대상인 새로운 보를 부숴버렸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정부는 장흥부사 이용태(李容泰)를 안핵사로 파견하여 조사하였다. 하지만 안핵사 이용태는 일체의 죄를 동학교인에게 돌려 교인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살상·체포·방화 폭행을 일삼았다.

이에 격분한 전봉준은 동학접주인 손화중(孫和中)·김기범(金箕範; 開南) 등과 함께 보국안민을 표방하며 인근지역의 동학교도와 농민들을 고부의 백산(白山)에 집결시켰다. 백산에 모여든 1만여 명의 농민군은 전봉준을 총대장, 손화중·김개남을 총관령(總管領)으로 추대하였으며, 백산에 호남창의소(湖南倡義所)를 두었다. 이 때가 1894년 음력 3월 25일(양 4. 30)이었다.

당시 총대장 전봉준은 농민군의 4대 강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안으로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쫓고자 함이다’라는 요지의 격문을 작성하여 사방에 전하여 일반 민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였다.

전봉준의 격문은 즉시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에 전달되었던 것 같다. 순천지역에서는 백산봉기에 박낙양(朴洛陽)이 두령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⁸⁾ 박낙양은 전봉준의 주장에 적극 찬성하였기 때문에 순천의 농민군을 모아 백산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이들은 전봉준의 지휘를 받



사진2-84 : 동학농민군 총대장 전봉준

8) 오지영, 『동학사』(『동학농민전쟁사료대계』 1, 여강출판사, 1994), 459쪽.

으며 활약한 것으로 보인다.

2. 영호도회소의 설치와 폐정개혁운동

보은취회에 적극 가담한 바 있던 전남 동부지역의 동학교인과 농민들은 백산에 곧장 달려갔으나, 전주를 점령하는 과정에서의 임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알 수 없다. 이들이 돌아오는 과정만이 간단히 기록에 남아 있을 뿐이다. 이들은 1894년 6월 하순 순창을 거쳐 순천으로 돌아왔는데, 약 100명 가량이었다.⁹⁾ 이들은 정부와의 힘겨운 투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가슴에 간직한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향으로 향하였을 것이다. 박낙양 등이 백산봉기에 가담하기 위해 순천을 출발한지 약 두 달만의 귀향이었다.

한편, 백산봉기이후 전라우도 지역에서 농민군의 항쟁이 한창일 때 전라병사 이문영(李文榮)은 순천에서 150명, 광양·낙안·곡성·홍양 등에서 각 100명씩 포군(砲軍)을 선발하여 병영에 주둔시켜 농민군과의 전투에 대비한 적도 있었다.¹⁰⁾ 하지만, 전주화약 이후로는 각 군의 수령이 도망하거나, 농민군의 눈치를 살피며 향응을 베푸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농민군의 의도대로 읍정(邑政)이 좌우되는 지역이 많았다.¹¹⁾

당시 광양에서도 동학교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¹²⁾

봉강면의 유석훈(兪錫勳) 접주와 진월 출신의 양접주(梁接主)가 뛰어난 활동가로서 이름이 높았으며, 각 지역마다 동학조직이 결성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당시 광양에도 집강소가 설치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광양을 아우르는 전남 동부지역 농민군의 지도자는 금구(金溝) 출신의 김인배(金仁培)였다. 그는 김개남을 지지하는 인물로서 전라좌도의 핵심적인 농민군 지도자였던 것 같다. 따라서 그는 좌도의 남쪽 요충지인 순천부를 점령하라는 김개남의 지시를 받고 순천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당시 순천에 들어오는 과정에 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대개 이 (순천)부는 바다에 인접한 좌도(左道)의 큰 도시이다. 작년(1894 : 필자주) 음력 6월 이후 금구의 적과 김인배당이 각처의 비도를 이끌고 와서 10만명의 무리가 되었다. (김인배의 무리가) 와서 순천의 성 안에 웅거하고서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를 설치하였다(『동학란기록』 상, 680쪽).

9) 『양호전기(兩湖電記)』, 『동학농민전쟁사료대계』 6, 여강출판사, 1994, 148쪽.

10) 『번역 오하기문』, 85쪽.

11) 『영상일기(嶺上日記)』, 『동학농민전쟁사료대계』 2, 1994, 285쪽.

12) 『광양군지』, 282쪽 참조.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인배는 1894년 음력 6월 이후에야 순천에 들어왔다. 앞서 언급한 바 있던 백산 봉기에 참여한 순천 농민군보다 약 한 달 정도 늦게 들어온 셈이다. 그런데 김개남은 남원점령에 앞서 이미 음력 5월 하순부터 약 한달간 태인·순창·옥과·담양·창평·동북·낙안·순천·보성·곡성 등 주로 전라좌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행하였다.¹³⁾ 이 과정에서 김개남은 순천의 중요성을 파악한 후 1894년 음력 6월 말에 김인배로 하여금 순천을 점령케 하여 영호도회소를 설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호도회소는 「영호대도소(嶺湖大都所)」로 알려져 왔다. 그후 영호도회소로 부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영호도회소로 불리고 있다.¹⁴⁾

영호도회소는 순천도호부의 읍성에 본부를 두고서 광양현·낙안군·좌수영(여수)을 관할하였는데, 현재의 광양 순천 여수 여천시·군 지역이 해당된다. 아마도 고흥·보성·구례군 지역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요컨대, 영호도회소는 김개남의 영향아래 전남 동부지역 농민군의 중심점으로서 이 지역의 통치권을 장악한 상태로 활동하였다.¹⁵⁾ 따라서 영호도회소는 전라좌도의 남부지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현재의 전남 동부지역을 총괄하는 임무를 띤 농민군의 지휘부인 셈이다.

이제 전남 동부지역 농민군의 중심기관인 영호도회소의 조직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영호도회소의 조직은 매우 체계적이었다.¹⁶⁾ 영호도회소의 조직과 그 주요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¹⁷⁾

〈표2-31〉 영호도회소의 조직과 주요 구성원		
직책	성명(출신지)	비고(사망날짜 : '94년 음력)
영호대접주	김인배(금구)	광양 효수(12. 7)
영호수접주	유하덕(순천)	위와 같음(12. 8)
영호도집강	정우형(순천 쌍암)	순천 포살(12. 6)
	이우회(순천 쌍암)	좌수영 압송 효수(12. 11)
성찰	권병택(순천)	좌수영 압송 포살(12. 12)
순천 도성찰	손지란(순천)	장흥 고전산 체포(양 '95. 9)
광양 순천수접주	김학식	광양읍 포살(12. 11)
순천 서면 접주	김영구	좌수영 압송 효수(12. 12)
별량면 접주	김영우	위와 같음(12. 12)
월등면 접주	남정일	위와 같음(12. 12)
동촌면 접주	정재철	장방수(長房囚)
성찰	정지규·황학련·위광석	"
송광면 성찰	김배옥	"
쌍암면 접사	이우회 아들	순천 타살

13) 「영상일기」, 『동학농민전쟁사료대계』 2, 1994, 285쪽과 이진영, 「김개남과 동학농민전쟁」, 『한국근현대사연구』 2, 한울, 1995, 84쪽 참조.

14)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주최(『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학술대회 발표요지』, 1994년 6월3일)의 학술발표에서 필자는 김양식의 「전남 동부지역의 농민군 활동」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영호도회소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 학술대회 토론』(『호남문화연구』 23, 1995, 483~6쪽 참조).

15) 김양식, 앞의 논문, 54~55쪽.

16) 김양식, 앞의 논문, 55쪽.

17) 「광양현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 광양섬계역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嶼溪驛捕捉東徒姓名成冊)」(『잡책철(雜冊綴)』, 규장각 소장 도서번호 21970 ; 『각사등록(各司謄錄)』 54, 국사편찬위원회, 1991)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직책	성명(출신지)	비 고(사망날짜 : '94년 음력)
광양 봉강면 접주	박흥서	광양 포살(12. 7)
인덕면 접주	성석하 · 박소재 · 박치서	광양 포살(12. 8~9)
사곡면 접주	한군협 한진유	광양 포살(12. 8 10)
옥룡면 접주	서운약 형제 · 이종례 · 하종범 · 서통보	광양읍 포살(12. 8)
월포면 접주	김명숙	광양 포살(12. 9)
섬계역 도접주	김갑이	섬계역 참수(12. 10)
도집강	정홍섭	위와 같음
동몽	조백원	섬계역 포살(12. 10)
동외접 서기	오준기(운봉)	순천 타살(12. 12)
경상도 양산 접주	황두화	위와 같음
광주 성찰	박현동	위와 같음

위에 보이는 직책과 구성원만으로 영호도회소의 조직 체계를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 위의 명단은 1894년 음력 12월에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농민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도 영호도회소의 대강의 조직체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호도회소는 대접주 김인배가 통솔하였고, 그 아래에 수접주 유하덕, 도집강 정우형 · 이우회, 성찰 권병택, 광양 순천 수접주 김학식 등이 상부 조직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상층부는 대접주 · 수접주 · 도집강 · 성찰 등으로 편제되었으며, 하층부에는 면단위마다 접주 · 접사 · 성찰 · 동몽 서기 등이 있었다.¹⁸⁾ 면과 면, 군과 군을 관할하는 도접주 혹은 수접주가 있었으며, 집강소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도회소내의 하부 기관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여진다.¹⁹⁾

직책에 따른 임무를 대강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대접주와 수접주 및 도접주 등이 해당 도회소나 접(接)을 관할하는 명실상부한 대표였을 것이며, 도집강은 해당 접의 폐정개혁을 수행하는 책임자로 믿어진다. 폐정개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전라좌우도 대도소의 도집강이 각 지역 도소나 도회소의 도집강에게 지시를 내리면 그러한 사안은 곧 읍면단위(邑面單位)의 접으로 전달됨으로써 해당 집강들이 그것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영호도회소와 섬계역에 도집강이 존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러하다. 즉, 전라좌우도 대도소 도집강(송희옥)－영호도회소 도집강(정우형)－각 읍면 집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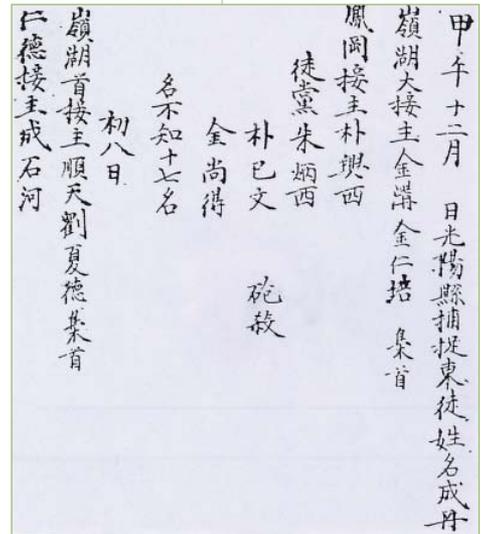


사진2-85 : 광양현 포척동도 성명성책(규장각 소장)

18) 김양식, 앞의 논문, 56쪽.

19) 위의 논문, 56~7쪽.

순으로 체계화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영호도회소의 경우에도 대접주 아래에 도집강이 있는 점으로 보아 접주 아래에도 집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지역의 집강들은 해당 접주와 상의하여 농민군 보유 무기와 장비의 파악, 농민군의 약탈과 토색 금지, 민소 등을 해결하였으며, 그것을 다시 감영이나 도회소의 도집강에게 보고하였다.²⁰⁾ 이러한 집강의 활동은 지방관의 임무에 비교될 정도였다.²¹⁾ 다시 말해 각 군현의 집강은 폐정개혁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활약하였는데, 수 명의 실무진을 두고서 민간의 소장이나 폐정개혁의 추진뿐만 아니라 동학의 포교도 담당하였다. 물론 동학의 6임 중의 하나인 집강의 소임은 포교조직과 관련하여 기율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한편, 접사(接司)는 접주의 명령을 받아 실행하는 부접주에 해당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성찰(省察)은 치안이나 경찰 임무, 동몽(童蒙)은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심부름이나 호위를 주로 담당하였다.²²⁾

이제 영호도회소를 이끌었던 주요 구성원에 대하여 알아볼 차례이다. 먼저 대접주 김인배(1870~1894)는 전북 금구(현 전북 김제군 봉남면 화봉리) 출신이다. 그는 김해김씨로서 그의 4대조인 성현(成鉉)대에 전북 김제에 살기 시작하였다.²³⁾ 그의 생부(生父) 현표(顯彪; 1852~1923)는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그 지역의 향반 출신으로 보인다.²⁴⁾ 그는 백부 현모(顯謨; 1844~1873)의 양자로 들어가 부인 김제 조씨(金堤趙氏)와의 사이에 아들 종성(鍾成)과 종철(鍾哲)을 둔 어엿한 가장이었다.

그런데 김인배는 일명 용배(龍培)로 불렸으며, 불과 스물네살의 나이로 농민군 10대 지도자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²⁵⁾ 그는 일찍부터 동학에 입도하여 활동하다가 1894년 백산봉기에 김덕명과 함께 참여하였다. 이 때를 전후하여 김개남의 측근세력으로 활동하다가 전주화약이후 김개남을 따라 전라좌도의 남동부 지역을 관할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남 동부지역과는 전혀 연고가 없는 그가 어떻게 영호도회소의 대접주로 발탁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아마 김개남의 각별한 신임이 있었기에 20대의 젊은 나이로 영호대접주로 활동하였을 것이다. 영호도회소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한 여타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들의 신분이나 경제적 처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광양의 옥룡면 접주인 서윤약(徐允若)·형약(亨若) 형제는 운평리

20) 노용필, 「동학농민군의 집강소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33, 1992, 103~117쪽.

21) 「번역 오하기문」, 129쪽.

22) 김양식, 「1894년 농민군 도소(都所)의 조직」, 『사학지』 28, 1995, 374~5쪽.

23) 『김해김씨경파통합보』金海金氏京派統合譜 병일편(丙一編), 1991, 881~2쪽.

24) 위의 책, 883쪽.

25) 이이화, 『발굴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100쪽.

상평 출신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옥룡 출신의 변낙중(卞樂仲)과 이경도(李京鳴)는 「동도괴수(東徒魁首)」로 알려질 정도의 농민군 지도자였는데, 이경도의 부친은 옥룡면 면임(面任)을 역임한 바 있었다.²⁶⁾ 이로써 볼 때 영호도회소의 주요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열악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또한 순천의 진사 유재술(劉在述)이 농민군에 적극 가담하였다.²⁷⁾ 그가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혹 영호수접주인 유하덕(劉夏德)이나 1890년을 전후하여 광양에서 동학을 전파한 유수덕(劉壽德)과 관계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실제 농민군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학식을 갖춘 자 가운데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의로운 자가 많았다고 한다.²⁸⁾ 영호도회소의 농민군 지도자 역시 그러하였을 것이다. 물론 일반 농민군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가난한 농민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리라 믿어진다.

영호도회소의 접주나 접사·성찰·동몽 등 주요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은 김인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남 동부지역 출신들로 보여진다. 이들과 김인배 사이에는 갈등요소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코 결속력이 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10만 명의 대규모 세력으로 알려진 영호도회소가 일시에 무너진 점에서 그러하다. 비록 과장된 숫자라고 하더라도 영호도회소에서 장악한 농민군 숫자는 상당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농민군을 열렬히 호응하였던 배경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민군을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의로운 군대라고 생각하여 지지하였다는 일본측 보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²⁹⁾

이처럼 농민군의 안민적 활동이 강화됨으로써 농민군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크게 늘어났다. 농민군에 한 번 들어오면 마치 별천지에 든 것처럼 여겼으며, 귀가하여 가래와 호미를 드는 일이나 가정을 돌보는 일은 내키지 않아 할 정도였다.³⁰⁾

영호도회소는 또한 각 군현의 치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수령과 향리들이 도망하거나 공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자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 기능마저 마비되었다. 이에 각 도소의 도집강과 도성찰, 각 면의 집강과 성찰 등을 중심으로 부랑배를 단속하거나, 타 지역의 농민군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일을 막기도 하였다.³¹⁾

26) 『광양염문기(光陽廉聞記)』, 『각사등록』 54, 1991, 89쪽.

27) 『변역 오하기문』, 228쪽.

2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25쪽.

29) 위의 책 3, 215쪽.

3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55쪽.

31) 김양식, 앞의 논문, 『호남문화연구』 23, 1995, 60쪽.

3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69쪽.

33) 『번역 오하기문』, 127~129쪽.

34) 위의 책, 130쪽.

또한 폐정개혁을 수행함과 동시에 포교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도회소의 관할 지역내에서 동학의 6임제가 시행된 점이나, 동학의 접주들이 농민군 활동을 주도한 점이나, 경상도와 전라도의 접경지역에 동학당이 많았다는 사실³²⁾ 그리고 농민군을 ‘동학군’·‘동학인’ 등으로 불렀다는 점으로 보아 그러하다. 이처럼 농민군의 제반활동은 광범하게 호응을 얻었다. 그러자 오래전부터 동학에 입도하고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상황을 관망하던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모두 들고 일어나 서로 “접장”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³³⁾ 이들은 염주를 목에 걸고 부적을 붙이고 주문을 외우며 총칼을 휴대하고 떼지어 진을 이루어 산과 들을 가득 메웠다. 당시 관리들도 이같은 행동을 환영할 뿐 동학교인의 기세를 꺾은 적이 없을 정도였다.

동학에 입도하려면 반드시 하늘에 제사를 지내었는데, 제물로는 맑은 술과 물고기, 과일 등 세 접시만 간단히 쓰도록 하였다.³⁴⁾ 또한 이들은 대체로 「강신주(降神呪)」와 「강령주(降靈呪)」 등의 간단한 주문을 외었으나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귀천과 노소에 구애됨이 없이 똑같이 인사를 주고받아 마치 벗들이 교제하는 것과 같았다. 따라서 사노비와 역졸, 무당, 백정 등과 같은 비천한 사람들이 다투어 입도하였다. 광양과 순천의 경우에도 농민군들이 일반 평민들에게 동학에 가입하기를 적극 권유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농민군의 대부분은 동학에 입도한 것으로 보인다.

3. 영호도회소의 군사활동

1) 순천·광양의 군사적 기반

영호도회소가 순천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순천부사의 부임이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순천부사 김갑규가 1894년 음력 6월에 이임한 후 약 2~3개월간 순천에는 새로운 부사가 부임하지 않아 공백상태에 있었다. 신임부사 이수홍(李秀洪)은 음력 8월에야 부임하였다.³⁵⁾ 따라서 공백기 동안에는 영호도회소가 순천성내의 관아를 장악하고서 치안의 임무와 폐정개혁을 수행하는 중이었다.

이수홍이 부임할 당시 순천의 관아는 이미 김인배를 비롯한 영호도회소

35) 『승평지』, 66쪽.

의 수뇌부가 장악하고 있었다. 도호부의 관아가 영호도회소의 활동 근거지로 이용된 것이다. 당시 관원들은 농민군의 눈치나 살피는 천덕꾸러기나 다름없었으며, 신임부사조차도 빈 관사에서 유생들과 시문(詩文)이나 지으며 소일하자, 순천부민들이 그를 비웃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순천 지역은 영호도회소의 대접주 김인배가 장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순천과는 지척의 거리에 있던 광양은 영호도회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광양은 경상도 서부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영호도회소의 전진기지였던 곳이다.³⁶⁾ 그런데 광양은 1869년과 1889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장항쟁이 일어났던 곳인 만큼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따라서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적극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영호도회소가 광양을 강제 점령하거나, 혹은 영호도회소의 지도부와 광양의 농민군 사이에 알력이나 갈등, 대립적인 요소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광양의 농민군 역시 영호도회소의 지도아래 긴밀하게 협조하며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영호도회소의 대접주 김인배와 수접주 유하덕의 아래에 광양·순천 수접주로서 김학식(金鶴植)이 활동한 점³⁷⁾으로 보아 그러하다. 광양과 순천을 동시에 관할하는 수접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곧 이 지역이 영호도회소의 직접 지배하에 있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광양은 영호도회소의 영남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하동이나 진주로 진출할 때 항상 광양을 근거지삼아 섬진강을 건넜으며, 후퇴할 경우에도 반드시 광양으로 되돌아왔다. 그만큼 광양은 영호도회소의 경남 서부지역 진출의 요충지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양의 농민군은 규모나 활동면에서도 영호도회소의 주력 부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서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광양지역은 일찍부터 동학이 번성하였다. 1890년대를 전후하여 동학교인이 급신장한 것이다. 광양 봉강출신의 조두환(趙斗桓; 1867~1935)은 20대의 나이인 1890년에 역시 광양 출신인 유수덕(劉壽德)으로부터 동학의 도(道)를 전수받았다.³⁸⁾

이렇게 보면 광양에는 적어도 1890년 이전에 동학교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전후하여 동학의 전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동학교인의 광화문 복합상소와 보은취회에 적극 가담하였다. 조두환의 경우, 갑오년에는 접사(接司)로 활동하다가 그해 말 백운

36) 전남일보「동학100년」 27회, 1994년 7월13일자.

37) 「광양현포작동도성명성책」(「잡책철」, 규장각 소장, 21970) 참조.

38) 허남호, 「고소암조두환씨를 추도함」, 『천도교회월보』 279, 1935, 37쪽.

39) 이상은 주) 88의 자료에 의거하여 정리함.

4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69쪽.

41) 이 표는 「광양섬계역포착동도성명성책」과 「광양현포착동도성명성책」, 그리고 「광양염분기」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산으로 도망하여 겨우 목숨을 건졌다. 물론 이후에도 그는 동학교인으로서 크게 활동하였다.³⁹⁾

물론 보은취회에 가담하는 광양의 교인이 많았다는 사실과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라는 동학의 주문(呪文)을 광양 사람이 지었다는 말이 경상도에 퍼져 있었다는 점⁴⁰⁾도 사실여부를 떠나 역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광양으로부터 경상도 서부지역으로 동학이 전파되었음을 알려주는 단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집강소 활동기에 광양의 농민군과 하동 진주의 농민군 사이에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리고 광양 출신으로 영호도회소에서 활동하였던 사람들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표2-32>는 대체로 1894년 음력 12월 초순, 농민군에 대한 진압이 무자비하게 자행될 당시의 명단이다. 그것에 의하면, 주로 봉강·인덕·사곡·옥룡·칠성·우장 등의 지역에 접주와 성찰, 그리고 일반 농민군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섬거역의 경우에는 도접주 김갑이(金甲伊)와 도집강 정홍섭(丁洪燮) 등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광양 농민군의 신분이나 경제적 기반 등은 잘 알 수 없다. 최후항쟁 당시 체포·전사한 농민군의 일부에 대한 출신지 및 직책 정도를 겨우 알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 그것을 기록하면 아래와 같다.

〈표2-32〉 광양지역 동학농민군 명단 ⁴¹⁾		
지역명	직책	명단
광양·순천	수접주	김학식
	도접주	김갑이
섬거역	도집강	정홍섭
	동몽	조백원
	농민군	강관옥, 강성화, 김석준, 김성이, 김용수, 김용이, 김일선, 김종진, 김필수, 나시돌, 박만이, 박치서, 심이준, 안정근, 염동필, 유연금, 윤윤원, 이현두, 전소노미, 정덕원, 정득조, 정이성, 최경천, 최학렬, 홍정기
	접주	박흥서
봉강(鳳岡)	접사	조두환
		김상득, 박기문, 주병서
사곡(沙谷)	접주	한군협, 한진유
	농민군	강재만, 김재원, 하원준
옥룡(玉龍)	접주	서윤약 형제, 서통보, 이중례, 하종범
	동도괴수	변낙중, 이경도
	농민군	김봉기, 김차금, 박계연, 박종률, 성통보, 이관철, 정경순

지역명	직책	명단
우장(牛藏)		강종오, 김치서, 이만수, 이차겸, 임수완, 최득득
월포(月浦)	접주	김명숙
인덕(仁德)	접주	박소재, 박치서, 성석하
	농민군	강재윤, 김두화, 김백공, 김순용, 김종지, 박일조, 박치우, 서달수, 서성화, 오분돌, 오석곤, 오창순, 우암두, 유우석, 유수복, 정재오, 조군선, 추성관
칠성(七星)	농민군	김낙현, 김원일, 김필성, 남상집, 박동실, 정문명

위의 표를 통하여 광양 지역 농민군들은 섬거역과 인덕·옥룡면 출신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단순히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활동상을 구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봉강면의 경우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17명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앞의 지역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광양지역은 읍치(邑治)를 중심으로 네 방향의 어느 곳에서나 농민군이 활발하게 활동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동쪽의 섬거역과 우장면, 서쪽의 칠성, 남쪽의 사곡과 인덕, 북쪽의 옥룡 등이 그러하다. 한편, 광양의 어느 지역 출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박학일(朴鶴日) 등 49명이 음력 12월 22일 체포된 사실도 주목된다.⁴²⁾ 따라서 광양에서는 12월 한달 동안 1백여 명이 넘는 농민군이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변낙중과 이경도의 활동에 대하여 「광양염문기」에서는 ‘갑오년 동도괴수로서 자칭 선봉장이라 하며 말을 타고서 영·호남을 횡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광양의 농민군들이 주도적으로 경남 서부지역으로의 진출에 앞장섰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광양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경남 서부지역과 인접해 있다. 따라서 광양의 농민군들은 자연스럽게 하동·진주 등의 농민군과 연계 혹은 독자적으로 경상도 서부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이들은 영호도회소의 이름으로 활동하였을 것이다.

2) 경남 서부지역으로의 진출

광양현의 관아에서 동쪽으로 40리쯤 가면 섬거역이 나온다.⁴³⁾ 여기서 다시 약 20리만 가면 하동에 닿는다. 그 사이로는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하동은 호남과 영남의 경계에 위치해 있고 섬진강과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남쪽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그리고 바로 곁에는 영호남의 경계를 휘어안은 지리산이 버티며 하동을 감싸안고 서 있다. 영호남의

42) 「전라도소작·소획동도성책(全羅道所捉·所獲東徒成冊)」, 「동학란기록」 하, 국사편찬위원회, 1985, 710쪽.

43) 「읍지」 4, 아세아문화사, 1983, 194쪽.

44) 『번역 오하기문』, 203쪽.

45) 위와 같음.



사진2-86 : 섬진강 (하구)

46) 김준형, 「서부경남지역의 동학군 봉기와 지배층의 대응」, 『경상사학』 7 8합집, 1992, 84쪽.

47) 위와 같음.

48) 『번역 오하기문』, 203쪽.

중간에 위치한 화개는 산이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화적의 소굴이 되어서 호남에서 내쫓기면 영남으로, 그리고 그 반대의 소란이 반복되는 곳이기도 하였다.⁴⁴⁾ 더욱이 화적을 잡는답시고 관가의 포졸이 드나들며 북새통을 이루는 바람에 이 지역 주민들은 마을 단위로 군대의 편제를 갖추고 화포군을 만들어 대비하였는데, 이들을 「민포(民砲)」라고 불렀다.⁴⁵⁾

1894년 여름, 영호도회소의 농민군들이 하동의 동학조직과 접촉하고 있었다. 영호도회소는 전라도 관할지역에서 동학의 포교와 치안을 맡아 폐정개혁을 수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 이름에 걸맞게 경상도 서부지역에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함으로써 집강소의 활동을 경상도까지 확대코자 노력하였

다. 그리하여 일본세력의 내륙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최전방기지로 활용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광양에 집결한 영호도회소의 농민군은 하동의 장사군과 협력하여 섬진강을 건너 하동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하동읍내에 도소(都所)를 설치하여 곧바로 집강소의 폐정개혁 활동에 들어갔다.⁴⁶⁾

그런데 하동부사 이채연(李采淵)은 1894년 음력 6월29일에 부임하였다.⁴⁷⁾ 이 때는 광양과 하동의 농민군이 연합하여 바야흐로 본격적인 집강소 활동을 서두르던 시기였다. 당시 하동의 동학교인은 광양의 농민군과 긴밀한 유대와 지원을 받으며 공개적으로 활동중이었다. 이에 이채연은 화개의 민포로 하여금 농민군을 유인하여 광양으로 내쫓았다. 하동의 장사군 중에 광양의 농민군을 추종한 사람들은 모두 광양으로 도망하여 영호도회소 농민군과 합류하였다. 하동의 장사군 중에는 죽음이 두려워 감히 하동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⁴⁸⁾

한편, 일본군이 경북공을 전격적으로 점령하였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에 대응하여 1894년 10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2차 봉기군이 전북 삼례에 집결하였다. 당시 김개남의 영향하에 있던 순천의 영호도회소는 음력 8월말부터 새로운 활동에 들어갔다. 지금까지의 동학의 포교, 치안의 유지 및 폐정개혁 등과는 달리 본격적인 무력투쟁으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영호도회소는 먼저 경남 서부지역을 점령하기로 하였다. 이미 지난 7월에 하동의 동학교인을 도와 도소를 설치하여 활동하다가 허망하게 물러난 일이 있

있던데다 그곳에서 쫓겨난 동학농민군들도 광양에서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⁴⁹⁾ 또한 이들은 경남 서부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전라도 지역에 대한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을 미리 차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농민군의 경남 서부지역의 점령은 상황에 따라서는 경남 전체 지역에 대한 농민군의 군사활동을 확대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1894년 음력 9월1일(양9. 28), 영호도회소의 대접주 김인배와 수접주 유하덕은 1만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하동으로 쳐들어가기 위해 섬나루에 진을 쳤다.⁵⁰⁾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광양에 집결한 영호도회소의 농민군은 하동의 관군을 비롯한 민포군과 대치하였다. 그러나 하동 지역은 생각보다 훨씬 엄중하게 방어하고 있어서 강을 선불리 건널 수 없었다. 이에 대접주 김인배는 다음과 같은 기발한 꾀를 내어 농민군의 용기를 북돋았다.

인배는 부적 한 장을 그려 수탉의 가슴에 붙여 백 보 앞에다 놓고 자신의 심복 포졸에게 총을 쏘도록 하였다. 이에 큰소리로 사람들에게 “닭은 반드시 총알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접장들께서는 저의 부적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연달아 세 번을 쏘았는데, 하나도 맞지 않았다. 적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부적의 효험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부적을 옷에다 붙이고 앞을 다투어 강을 건넜다(『번역 오하기문』, 234쪽)

김인배는 부적을 이용하여 동요하려는 농민군들을 단단히 몽치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손쉽게 섬진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들은 두 부대로 나뉘어서 한 부대는 얇은 여울을 건너 하동부의 북쪽에 진을 쳤으며, 다른 한 부대는 광양의 망덕 나루터에서 배다리를 만들어 건너가 하동부의 남쪽에 진을 쳤다.

당시 하동부는 화개의 민포군을 중심으로 사수하고 있었다. 하동부사인 이채연은 농민군의 원한을 산 까닭에 이미 대구로 달아나 버렸다. 이에 하동의 민포군은 전 주부(主簿) 김진옥(金振玉)을 민포대장에 추대하여 통영의 대완포(大碗砲) 12문으로 무장한 채 죽음을 무릅쓰고 사수할 생각이었다. 이들은 안봉(鞍峰; 하동 관아의 뒷산)에 진을 치고서 농민군을 격퇴할 준비를 마쳤다.⁵¹⁾

음력 9월2일(양9. 29) 초저녁, 농민군은 하동의 동학농민군 여장협이 이끄는 1천여 명과 합세하여 안봉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갔다.⁵²⁾ 이에 수천명

49) 『번역 오하기문』, 233쪽.

50) 이하 하동 점령과정은 『번역 오하기문』, 233~6쪽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51) 여재규, 『하동군사』, 1978, 249쪽.

52) 위와 같음.

을 동원한 하동의 민포군은 남북 좌우에서 협공하는 농민군을 맞아 대포를 쏘았으나 대부분 빗나가거나 폭발하지 않았다. 다만, 화개의 민포 35명은 농민군을 향하여 정확하게 사격함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곧 어두움이 깔려 총을 쏘아도 명중되지 않자 민포군들은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다.

음력 9월 3일 날이 밝자, 농민군은 하동부에 들어가 하동부사 이채연의 집과 민포군과 관련된 민가 10여 채에 불을 질렀다. 농민군은 하동부에 도소를 설치하고서 읍권을 장악하였다. 지난 7월 민포군에 쫓겨난 하동의 장사군을 중심한 일부의 농민군은 곧바로 민포군의 거점인 화개로 내달아 500여 채의 민포군의 집에 불을 질렀다. 민포군이 자신들의 처자와 집을 태운 것에 대한 보복인 셈이다. 아울러 미처 도망하지 못한 민포군 10여 명을 처형하였다. 또한 이들은 민포군의 재산을 빼앗아 군량으로 이용하기 위해 화개에서 광양·순천으로 운반하느라 길이 막힐 정도였다. 이처럼 하동 지역을 장악한 농민군의 주력부대는 이곳에 5일 정도 머물며 군기를 정돈한 후 일부는 광양과 순천으로 되돌아갔고, 나머지는 김인배의 통솔하에 진주를 향해 진격하였다.

한편, 이와 비슷한 시기에 진주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9월 28일 진주와 단성의 동학교인과 농민군들이 모여들었으나, 진주의 경우에는 목사와 병사의 설득으로 일단 그 다음날 해산하였다.⁵³⁾ 하지만 이 지역 동학농민군들은 음력 9월 2일자 「진주초차괘방(晉州初次掛榜)」이란 방문에서 음력 9월8일(양 10. 6)날 각 리마다 13명씩 3일분의 식량을 휴대하고서 광탄진(廣灘津)에 모이라고 하였다.⁵⁴⁾ 실제로 진주의 73개 면마다 각 100명의 주민들이 읍내 시장가에 모여 민폐의 교정(矯正)을 주장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11일날 복흥대우치(復興大牛峙)에 모이라는 통문을 돌렸다.⁵⁵⁾ 동시에 이들은 왜적을 섬멸하기 위해 이미 진주에서 대회를 열었다는 것과 전임(轉任)되는 병사의 유임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진주대회를 열자고 충경대도소(忠慶大都所)의 이름으로 통문을 발송하였다.⁵⁶⁾

이와 같이 진주는 영호도회소의 농민군이 들어오기 직전부터 동학교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폐정개혁을 주도하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었다. 즉, 진주의 동학교인들은 읍폐를 교정하기 위해 음력 9월14일에 읍내에서 취회한 다음, 장시(場市)에 장막을 설치하고서 인가의 훼손(毀燒)과 동헌의 무단출입 및 죄수 석방 등을 주도하였다.⁵⁷⁾ 진주의 경우, 동학교인들이 상

53) 김준형, 앞의 논문, 90쪽의 주 58 참조.

5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39쪽.

55) 김준형, 앞의 논문, 91쪽.

5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40~141쪽.

57) 김준형, 앞의 논문, 91쪽.

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음력 9월 중순경 진주 인근의 남해(南海)·사천(泗川)·고성(固城)·곤양(昆陽) 등지에서도 농민군의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호남의 농민군들이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경우도 많았다.⁵⁸⁾ 음력 9월 15일 광양과 순천의 동학농민군 수천 명은 깃발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곤양을 거쳐 거침없이 진주로 향하였다.⁵⁹⁾ 이들은 같은 날 하동 다솔사(多率寺)에서 모인 하동 동학군 수천 명과 진주 접경의 완사역(完沙驛)에서 합세하였다.⁶⁰⁾

드디어 이들은 음력 9월17일(양 10. 15)에 진주에 무혈 입성하였으며, 다음날 영호대접주 김인배가 1천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들어왔다. 당시의 상황을 옮겨 보면 아래와 같다.

(음력) 9월17일 동도 수천 명이 하동으로부터 본주(진주 ; 필자주)로 들어오자, 병사와 목사는 모두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방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 일렀다. 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은 그 기세를 타고 성내로 들어와 각 관청을 점령하여 (도)소를 설치하였다. 소위 도통령 정운승(鄭運昇)은 수백 명, 중군장은 4~5백명, 하동포는 7~8백명, 우선봉장은 5~6백명, 후군장은 4~5백명, 도통찰(都統察)은 1백여 명을 거느렸다. 기타 단성포(丹城包)·남원포(南原包)·섭천포(涉川包)·상평포(上平包)·오산포(吾山包)·구례포(求禮包)는 각각 읍 근처에 흩어져 주둔하였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18일 영호대접주 김인배가 1천여 명을 이끌고 이청(吏廳)으로 들어왔다. 징과 북소리 그리고 포성이 뇌성과 같았으며, 총과 창검의 날카로움이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군진의 앞에 커다란 붉은 기를 세웠는데, “보국안민(輔國安民)” 낙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고문서』 2, 407쪽).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진주관아는 음력 9월 17~18일(양 10. 15~16) 영호도회소를 중심한 동학농민군에 의해 접수되었다. 김인배를 정점으로 하는 수천 명의 농민군들이 조직적으로 편제되었으며 대단한 군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진주에는 목사와 병사가 있었지만 농민군을 전혀 저지할 상황이 못되었다. 오히려 진주병사 민준호(閔俊鎬)는 이교(吏校) 30여 명을 인솔하여 농민군을 성 안으로 안내하고 잔치를 베풀어 위로할 정도로 농민군에게 호의를 베풀었다.⁶¹⁾ 당시 진주 지역의 분위기가 농민군에

58) 위의 논문, 92~3쪽.

59) 『고문서』 2, 서울대 규장각, 1987, 406쪽.

60) 위와 같음.

61) 이이화, 『발굴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118쪽.

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농민군은 상당히 체계화된 군사조직을 운용한 점도 주목된다. 즉, 도통령·중군장·우선봉장·후군장·도통찰 등과 같은 편제로 보아 그러하다. 그리고 하동포·단성포·남원포·구례포 등의 포단위(包單位)로 된 여러 개의 군사조직이 동시에 운용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섭천접·상평접·오산접 등은 진주 인근 지역의 동학조직이었다.⁶²⁾ 이로써 볼 때 경남 서부지역에서 활동한 농민군은 다원적인 조직으로 운용되었음도 특이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농민군 조직들은 통일적인 군사조직체가 아니라 도소나 도회소 및 동학의 포접단위가 함께 활동하는 연합부대의 성격을 띠는 점이다.

이들은 음력 9월 19일부터 24일(양 10. 17~22) 사이에 진주성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영호도회소와 현지에서 봉기한 농민군들은 경남 서부지역의 관아를 돌며 군량을 비롯한 군수품을 확보하고 나아가 죄수의 석방과 무기를 탈취하는 등 완전히 읍권을 장악하는 중이었다. 나아가 농민군 수천 명을 두 개의 부대로 나누어 부산으로 진격할 계획을 세웠다.⁶³⁾ 농민군은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을 내쫓으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처럼 농민군의 세력이 진주를 비롯한 경상우도 지역에서 급속하게 확대되자, 조선의 개화정권과 일본측은 각각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조정과 감영에서는 대구판관 지석영(池錫永)을 토포사(討捕使)로 임명하여 진주와 하동 등지의 농민군을 진압케 하였는데, 통영의 관군 및 군수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일본측에서도 영호도회소가 하동을 점령할 무렵부터 농민군의 동향을 주시하며 군대의 파견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⁶⁴⁾ 일본측은 농민군의 세력기반을 없애야만이 조선에서의 군사활동이 원활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의 일본영사관에서는 10월 중순경 이미 헌병과 순사를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었으며, 병참부와 군용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병력 파견을 요청하고 있었다.⁶⁵⁾ 이에 따라 10월 23일 부산영사관에서는 일본군 3개소대 150명을 비롯한 군수요원 약 200명을 파견하였다.⁶⁶⁾ 이들은 10월 27일부터 하동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진압작전에 돌입하였다.⁶⁷⁾

11월 5일에는 일본군과 지석영이 이끄는 관군과의 합류가 이루어졌다. 이후 12월초순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으며, 농민군에게 전세는 점차

62) 표영삼, 「경상도 남서부지역의 동학혁명」, 18쪽.

6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358쪽.

6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 71~2쪽.

65) 위의 책 1, 129쪽.

66) 김준형, 앞의 논문, 95쪽.

67) 위의 논문, 95~6쪽.

불리하게 진행되어갔다.⁶⁸⁾ 그 가운데 몇 개의 전투 상황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11월 6일 농민군 지도자 임석준(林石俊)은 토포사 지석영에게 체포되어 곤양군 성북 시장에서 효수되는 것을 시작으로 농민군의 희생이 줄을 이었다. 8일 새벽에는 하동의 안심동(安心洞) 뒷산인 금오산(金鰲山)에 집결한 수백 명의 농민군이 기습을 받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10일과 11일 사이에는 경남 서부지역의 마지막 대회전이 수곡면(水谷面)의 고승산성(高僧山城)에서 전개되었다. 당시 농민군 수천 명은 일본군과 관군을 맞아 싸우다 적어도 186명이 전사하고 2명이 피체되었으며, 화약 30관 · 한국돈 6관 790문 · 우마 19두 · 쌀 5두 · 총 136정 · 칼 18자루 · 나팔 3 · 깃발 3 · 화살 2다발 · 창 54자루를 빼앗기는 등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⁶⁹⁾ 전북 익산 출신의 삼남도성찰(三南都省察) 김상규(金商奎) 등이 체포되어 진주의 시장에서 효수된 것도 바로 이무렵이었다. 이후 단성 · 산청 · 함양 · 거창 · 안의 등 경남 서부지역에서 활동중인 농민군들도 대부분 하동과 광양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물론 영호도회소는 경남 서부지역을 다시 점령하고자 하였다. 즉, 경남 삼가(三嘉)에서 패배한 김인배는 순천에 돌아와 농민군을 규합하였다.⁷⁰⁾ 김인배는 지난 음력 9월 초 하동을 점령한 방법으로 다시금 하동을 공격할 계획이었다. 드디어 11월 20일 수천 명의 농민군이 하동을 향해 출발하였는데, 한 부대는 섬거역에 진을 치고 다른 한 부대는 섬진강을 향해 나아갔다.

이에 토포사 지석영은 일본군과 함께 김인배의 의도를 간파한 뒤 군사를 매복시켜 농민군의 후방을 차단, 포위하고서 급습하였다. 당시의 상황이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자신(지석영 : 필자주)은 본대를 지휘하여 망덕 바깥바다를 건너 귀로를 차단하고 일본군 수십 명에게 부의 공관을 향해 바로 쳐들어가게 하였다. 적 중에 기를 가지고 있던 자가 먼저 꺼꾸러졌다. 적이 그것을 보고 황급히 달아났지만 총에 맞고 강에 빠져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중략) 이때 마침 날이 저물고 큰 비가 내렸다. 적은 무기를 버리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자들이 속출하였다. 인배는 산 속에서 움푹 파인 곳에 엎드려 소나무 가지를 잘라 얼굴을 가리고 인정(人定)까지 기다렸다가 비를 맞으며 맨 발로 달아났다(『번역 오하기문』, 269~70쪽).

68) 이후 전투상황은『고문서』 2, 417~9쪽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69) 『주한일본공사관기록』1, 204~5쪽.

70) 『번역 오하기문』, 269쪽.

이처럼 전술의 부재와 무기의 열세로 말미암아 김인배의 영호도회소는 도리어 크게 패하고 말았다. 당시 섬진강을 건너다 빠져 죽은 농민군이 무려 3천여 명이었다고 전한다. 결국, 김인배는 농민군을 수습하여 수접주 유하덕과 같이 순천으로 돌아와 군기를 정비하였다.⁷¹⁾

이후의 전투는 주로 광양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예컨대, 11월 16일에는 광양 구등산(龜嶝山) 위에 있던 농민군이 일본군 148명의 습격을 받아 그중 7~8명이 전사하였다. 20일 광양의 섬거역 전투에서도 농민군 7~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이 관군과 일본군에게 크게 패하게 된 것은 무기의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호도회소의 농민군은 경남 서부의 농민군과 합세하여 거점을 확보한 뒤 부산까지 진격하여 일본세력을 구축할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한편, 영호도회소는 동으로는 하동에서 밀렸으며, 남에서는 좌수영의 관군이 버티고 있었다. 순천에서 전열을 정비하던 김인배는, 전봉준과 김개남의 농민군이 각각 우금재와 청주에서 패하였다는 우울한 소식을 들었다. 시시각각 불리해진 전황에 따라 영호도회소 역시 일본군과 관군에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하였다. 이미 선봉장 이규태(李圭泰)가 이끄는 주력부대 약 800명을 비롯한 순무영(巡撫營)·장위영(壯衛營)·통위영(統衛營) 등 3천여 명의 관군이 파죽지세로 전라도를 향해 남진하고 있었다.⁷²⁾

또한 주한일본공사에 새로이 임명된 정상형(井上馨)은 농민군의 무력진압을 서둘렀다. 그는 일본군을 3개 부대로 나누어 전라도로 출동시켰다. 즉, 1개부대는 충청도 서해안지대를 우회하여 전라도 서남해안을 거쳐 여수로 향하게 하였으며, 다른 1개부대는 서울에서 충청도 중앙부를 지나 전라도 남단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1개부대는 서울에서 강원 충청도를 거쳐 전라도로 남하하도록 하였다. 각 부대마다 조선의 관군을 앞세웠음은 물론이다.⁷³⁾ 따라서 일본군 3개 부대의 최종 목적지는 모두 전라도였는데, 특히 농민군을 전라도의 서남부, 즉 강진 해남방면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작전으로 일관하였다.⁷⁴⁾ 이는, 농민군을 한 구석으로 포위하여 섬멸하려는 작전이었다. 전라도에 출동한 일본군은 정예의 독립 제19대대로서 11월 12일에 신식무기를 앞세우고 남하하였다.

이에 따라 영호도회소는 농민군의 활로를 뚫은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였다. 사방에서 일본군과 관군이 전라도 지역의 농민군에 대한 포위망을 죄이자, 농민군들이 크게 동요하였던 것이다. 이에 김인배는 12월 초순 전라

71) 위의 책, 270쪽.

72) 구양근, 『갑오농민전쟁원인론』(아세아문화사, 1993), 449~450쪽.

73) 위의 책, 309~310쪽.

7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60쪽.

좌도 지역에서 활동중인 여러 접주들과 협의하여 좌수영을 점령하기로 하였다. 그는 여수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좌수영을 확보하여 지구전을 벌이거나, 여의치 않으면 바다를 통해 남해의 수많은 섬으로 들어갈 작정이었다.⁷⁵⁾

드디어 음력 11월10일(양12. 6), 영호도회소의 대접주 김인배는 수만 명을 이끌고 좌수영으로 향하였다.⁷⁶⁾ 그는 하동에서의 패배를 설욕할 기회로 생각하고서 좌수영을 반드시 점령할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이에 맞선 좌수사 김철규는 성주민들을 결속시켜 굳게 성을 지키고 있었으며, 때마침 갑작스런 추위가 몰아닥치자 농민군은 일단 순천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다시 전열을 정비한 김인배는 음력 11월16일(양12. 12) 낙안출신 이수희(李守喜)를 중군장으로 삼아 다시 좌수영 공격에 나섰다. 좌수영이 고립될 위기에 직면하자, 좌수사 김철규는 음력 11월 25일(양12. 21)에 여수 앞바다에 정박중인 일본 해군 축파호(筑波號) 함장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축파호 함장 흑강대도(黑岡帶刀)는 육전대(陸戰隊) 1백여 명을 상륙시켜 좌수영 군대와 합류하여 곧바로 농민군 진압에 나섰다. 그 결과, 농민군은 수많은 희생자를 남긴 채 순천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이 영호도회소는 대접주 김인배가 직접 나서서 3~4회에 걸쳐 좌수영을 공격하였으나 끝내 점령하지 못하였다. 이는 영호도회소의 최종목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즉, 좌수영을 근거지삼아 지구전을 펼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남해의 섬으로 들어가 장기항전을 모색하려는 농민군의 마지막 기대가 무너졌던 것이다.

4. 영호도회소의 붕괴와 그 피해 상황

11월 중순을 고비로 각 지역에서 활동중인 농민군의 전세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집강소 활동기부터 농민군에 협조해온 하급관리와 주민들의 분위기가 단번에 달라졌다. 특히, 영호도회소의 경남 진출이 좌절되고 마지막 거점이자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되던 좌수영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급속하게 이탈하였다. 또한 강제로 가담한 일반 농민군들 가운데 도망자가 속출하였다.

먼저 영호도회소의 본거지인 순천부터 알아보자. 영호도회소의 본영인

75) 이이화, 『발굴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102쪽.

76) 『번역 오하기문』, 282쪽.



영호도회소는 대접주 김인배가 직접 나서서 3~4회에 걸쳐 좌수영을 공격하였으나 끝내 점령하지 못하였다. 이는 영호도회소의 최종목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순천읍성에 주둔한 농민군의 최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쓰여져 있다.

① 작년(1894 ; 필자주) 6월이후 금구적 김인배당이 각처의 비도를 통솔하여 10만 명을 무리로 삼아서 (순천의) 성중에 웅거하면서 곧이어 영호도회소를 설치하였다. (이들은) 군기와 남의 전재를 빼앗아서 감히 군수물자라 하였으며, 전곡을 배당하고 징수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였다. (중략) 다행이 지난 음력 12월 6일(95.11 ; 필자주) 관리들과 주민들이 의로써 떨쳐 일어나 도집강·접주·접사·성찰·거괴 등과 그 여당 수백 명을 일망타진하였다(『동학란기록』 상, 680쪽)

② 지난 1895년 1월 1일 (양력) 순천부에서 일시 동학도에 붙었던 지방 이원(吏員)과 인민은 돌연 순천부의 경상 전라 동학도의 본영을 습격하여 동학도 수령의 한 사람인 정우형(鄭虞炯)이하를 살해하였다(이록신보 1895년 1월13일자).

위의 인용문을 종합하여 보면, 1895년 1월1일 새벽 4시경 순천의 향리와 군교 및 일부 주민들은 영호도회소의 본영을 습격하여 순천 쌍암출신의 영호도집강 정우형 등 수백 명을 일망타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력 12월 6일(양1. 1)에서 12일 사이에 영호도회소의 농민군의 지도자와 농민군은 최소한 112명이나 살육당하였다.⁷⁷⁾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군이 순천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순천성 안에는 농민군의 시체가 400여 구나 버려져 있었다고 보고하였다.⁷⁸⁾ 이들은 대부분 반농민군, 즉 이른바 수성군(守城軍)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순천의 영호도회소가 공격당할 때 대접주 김인배는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는 잔여의 농민군을 이끌고 광양으로 갔으나, 그곳 역시 순천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아래의 기록이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각처의 동학도 1천여 명이 본읍(광양 : 필자주)의 성내에 둔취하여 소란함이 무상하던 중에 이달 초이렛날 이민(吏民)이 일시에 힘을 합하여 이른바 영호대접주 금구 김인배와 영호수접주 순천 유하덕 두 사람을 아울러 체포, 효수하여 주민들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나머지 도당 90여 명을 포살한 연유는 이미 우선 봉 사포의 행차시에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도 민군(民軍)을 거느리고 100여 명을 잡아 즉시 포살하였습니다(『동학란기록』 상, 656쪽).

77) 위와 같음.

7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50쪽.

위에서 보이듯이, 음력 12월 7일(양 '95. 1. 2), 광양읍성에 주둔하고 있던 김인배이하 1천여 명의 농민군이 수성군의 공격을 받아 김인배이하 약 200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로써 영호도회소의 주력부대가 모두 붕괴된 것이다. 바로 그날 김인배는 배임을 당하여 그 머리가 객사에 걸렸으며, 외읍 접주 박흥서 등 23명도 포살되었다.⁷⁹⁾ 수접주 유하덕 이하 200여 명은 그 다음날부터 차례로 효수되거나 총살당하였다. 당시의 피해상황을 『각사등록』 54권에 의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7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5쪽.

효수 : 7일 = 영호대접주 금구 김인배, 8일 = 영호수접주 순천 유하덕

포살 : 7일 = 봉강접주 박흥서, 도당 주병서·박기문·김상득,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17명

9일 = 인덕접주 성석하, 박소재, 사곡접주 한군협, 옥룡접주 서운약 형제, 이중례·하중범·서통보, 도당 김차금

10일 = 월포접주 김명숙, 인덕접주 박치서, 도당 박치우 서달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순천 5명, 진주 1명

11일 = 순천 서면접주 김가, 사곡접주 한진유, 우장 도당 이차점, 옥룡도당 박계련, 사곡도당 하원준, 인덕도당 김종지·박일조·우업두·김백공·추성관·김두화·강재윤·서성화·정재오·조군선·유우석·김순용·오분돌·오석곤·오창순·유수복, 사곡도당 김재원·강재만, 우장도당 임수완·강종오·이만수·최득득·김치서, 칠성도당 남상집·김낙현·김필성·김원일·박동실·정문명, 옥룡도당 정경순·성통보·이관첨·김봉기·박종률, 순천 김재좌·김홍두·이석기·김윤실·황재숙·박한진, 광양순천 수접주 김학식, 구례 김기철, 경상 곤양 임재석·장학용, 진주 김학수, 삼가 고백준·고여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김인배이하 약 1백명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체포된 경우에도 대부분 가차없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음력 12월 22일에는 광양의 농민군 박학일 등 49명이 체포되었다.⁸⁰⁾ 약 1천여 명 가운데 그 1/10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니 그 피해 상황을 짐작할 만하다. 이들 명단에는 광양 출신은 물론이고 순천과 경상도의 곤양과 삼가 지역 출신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명단에는

80) 『동학란기록』 하, 710쪽.

81) 『김해김씨경파통합보』 병일편, 881쪽.

보이지 않지만 김인배의 9촌 숙부인 현익(顯翼 : 1867~1895)도 광양에서 죽었다고 한다.⁸¹⁾ 따라서 얼마나 많은 농민군이 광양에서 죽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진2-87 : 동학농민 포살지인 광양읍 유당공원

영호대접주 김인배는 체포되기 앞서 함께 활동하던 조씨 성의 처남에게 “장부가 사지에서 죽음을 얻는 것은 멧뚱한 일이요, 다만 뜻을 이루지 못함이 한이로다. 나는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맹세한 동지들과 최후를 같이할 것이니 그대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라.”고 하였다는 말이 전해진다.⁸²⁾

한편, 광양읍에서 수많은 농민군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월

포(月浦)와 다압(多鴨)·옥곡(玉谷) 등지에는 수천 명의 농민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은 수백 명의 일본군과 한국군 그리고 1,600여 명의 민포들에게 협공당하고 있었다.⁸³⁾ 여기에다 좌수영 군대까지 합류하였다. 1895년 1월 2일, 중초영장(中哨營將) 광경환은 우후(虞侯; 中軍) 신완(申完)과 함께 좌수영군 100여 명을 이끌고 남해도를 거쳐 하동의 내교장(內橋場)에 이르러 일본군과 연합하였다. 1월 5일, 농민군은 이들과 월포에서 교전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4시경 농민군은 섬거역에서 이들에게 25명이나 희생되었다. 6일 광양현 백양동(白楊洞)에서 동학군 지도자 정홍서(丁弘西)는 광경환이 이끈 100여 명에게 포박, 효수당하였다.

그런데 광양에서 활동중인 영호도회소의 농민군은 하동의 민포들로부터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즉, 하동의 민포들은 음력 12월10일(양1. 5) 탑촌(塔村)에서 섬진강을 건너와 백운산 자락의 옥룡면에서 농민군 31명을 체포하였으나 경병들에게 강제로 인계하였다. 또 다른 반농민군 부대는 광양의 죽천(竹川)에 도착하여 농민군의 목채(木寨)를 소각해버렸다. 옥곡에서 체포된 농민군 48명은 비촌(飛村)에서 총살되었으며, 체포된 13명 중 6명은 영호도회소 농민군의 지도자였다. 박정주(朴正周)·유윤거(柳允舉)·박사영(朴士永)·전백현(全伯賢)·김광준(金光俊)·고광신(高光信) 등

82) 이이화, 앞의 책, 104쪽.

83) 이하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의 6·14~5쪽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이 그들이다.

광양현에 소속된 섬거역에서는 더욱 많은 농민군의 피해를 입었다. 섬거역에서 희생된 농민군 가운데 확인이 가능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참수 : 도접주 김갑이, 도접장 정홍섭

포살 : 농민군 김석준 · 이현두 · 안정근 · 김용수 · 김필수 · 홍정기 · 염동필
김용이 · 김성이 · 나시돌 · 윤윤원 · 강관옥 · 정득조 · 박치서 · 최경천
박영조 · 유연금 · 정덕원 · 최학렬 · 박만이 · 김종진 · 김일선 · 강성화
정이성 · 전소로미 · 심이준, 동몽 조백원(음력 12월 10일 : '95. 1. 5)

섬거역에서 희생된 섬거역 도접주 김갑이이하 약 30명은 1895년 1월 5일 하동의 민병들에 의해 효수 총살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동의 민병들은 광양의 백운산을 포위하여 불을 지르고 동굴을 수색하였으며, 약탈도 서슴치 않았다. 섬진진(蟾津鎭)과 섬거역(蟾居驛)의 경우에는 특히 농민군이 많아 피해가 속출하였다. 이 지역은 '동학의 소굴'로 알려져서 동네 전체가 불에 타버린 경우도 많았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당시 농민군의 시체를 섬거역이 있는 동네 앞에 짚을 쌓아놓고서 불을 질러버렸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역이나 진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한편, 광양읍에서 반농민군을 주도한 인물은 군수를 역임한 김석하(金碩夏)였다.⁸⁴⁾ 그는 아마도 아전들과 일부 주민의 추대를 받아 농민군 공격에 앞장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광양의 반농민군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오로지 김석하만이 「동학당정토인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진압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문제되었거나, 이들의 전공보다는 일본군과 하동의 민포들의 보복행위로 말미암아 농민군의 피해가 크지 않았나 한다.

당시 광양에서 벌어진 농민군의 처참한 희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① (음력 12월) 초8일 하동 병력이 일본군을 인도하여 광양에 들어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천여 채를 불태웠다. 적은 죽은 자가 천여 명이었고 평민들도 많이

84) 『동학란기록』 하, 6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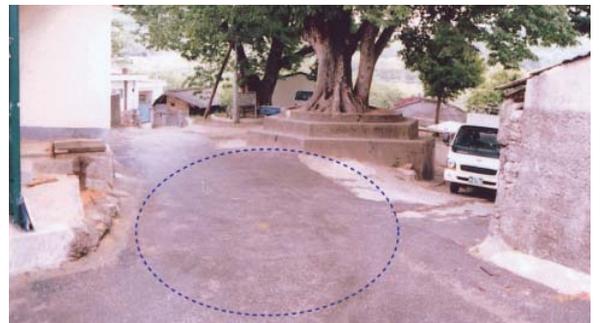


사진2-88 : 옛 섬거역터

죽었다. 이때의 살육과 약탈의 참혹함은 적보다 훨씬 더 심했는데 대개 영남우도 병사들에 의해 자행되었다(『번역 오하기문』, 296쪽).

② 광양에서는 산에 불을 지르고 동굴까지 샅샅이 수색하였는데 마치 짐승을 사냥하는 것 같았다. 광양은 좌도에서 가장 철저하게 적의 토벌이 행해졌다(위의 책, 309쪽).

앞서 보았던 농민군 명단을 고려한다면, 1천여 채의 가옥이 불타고 1천여 명의 농민군이 희생되었다는 기록은 전혀 과장이 아닐 것이다. 얼마나 험악한 상황이었는지 동학에 매우 비판적이던 황현조차도 반농민군의 잔인함을 비난하였다. 농민군의 체포·살상에 앞장선 사람들은 대체로 하동민병들이었다. 그들은 보복 차원에서 대량 살육과 방화를 자행하였는데, 마치 짐승을 사냥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잔혹한 살상이 문제가 되자, 장위영 군대를 인솔하여 농민군 진압에 나섰던 이두황조차 하동의 민병들에게 격문을 보내어 살상과 약탈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하여 광양 사람들은 이두황을 매우 고맙게 생각할 정도였다.⁸⁵⁾ 음력 12월 7일(양1. 2), 백운산으로 피하여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접사 조두환은 훗날 “천사(天師)의 감응(感應)하신 은덕”으로 누차 화를 피하였다고 적고 있다.⁸⁶⁾ 이러한 점만으로도 가히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영호도회소의 농민군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무엇보다도 화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일본군과 관군이 보유한 무기는 대부분 정예의 신식무기였다. 그러나 농민군은 대부분 죽창이나 몽둥이, 칼과 창, 아니면 재래식 무기인 조총(鳥銃)이 고작이었다. 설령, 신식무기를 노획하였다 하더라도 실탄의 부족과 사용 미숙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라도의 농민군은 시간이 흐를수록 공세에서 수세로 몰리게 되었다. 당시의 농민군들이 어쩔 줄 몰라 하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때 적이 사방으로 흩어져 뒤쫓아 체포할 수 없었다. 각 읍에서는 시골 마을에 명령하여 거리의 십리나 오리마다 초소를 만들어놓고 표식을 살펴 함부로 지방을 넘나드는 것을 방지하고 무릇 처음보는 의심스러운 사람은 세밀하게 캐물어 체포하도록 하였다. 날씨 또한 몹시 추워 적은 멀리 달아나지 못하였고

85) 『번역 오하기문』, 303쪽.

86) 『천도교회월보』 279(1935.9), 37쪽.

산골짜기나 동굴 속에 숨을 수도 없었으므로 얼어죽고 목매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번역 오하기문』, 308쪽)

당시 농민군들은 한겨울의 몹시 추운 날씨와 적대적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 목숨을 잃거나 아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농민군의 가장 큰 피해지역은 광양·순천·여수 지역이었다. 그만큼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영호도 회소는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과 비례하여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희생을 남긴 채 붕괴되고 말았다. 격렬한 전쟁의 뒤안에서는 잔인한 보복과 응징이 곳곳에서 진행되었음은 물론이다. 진압을 빙자하여 겁탈과 보복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거듭된 공문은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영호도회소는 전라좌도의 남부지역, 그러니까 현재의 전남 동부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농민군 조직이었다. 순천에 본영을 두고서 인근 지역인 광양현과 낙안군 그리고 좌수영과 고흥 등지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서부 경남지역에서의 활동도 크게 돋보였다.

이처럼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지역에서 강력한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의 농민들이 진보적이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 지역 농민들은 일찍부터 조선사회의 압박과 굴레를 떨쳐버리려고 노력하였다. 즉, 1862년 농민항쟁 당시에 순천 농민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친 바 있었다. 동학이 만들어진 후에는 입도자가 증가하여 보은취회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들의 민족의식과 평등사상이 크게 고양되었을 것이다. 1894년에 관리들의 탐학이 갈수록 심화되고 일본의 침략이 가속화되자, 영호도회소의 농민군은 척왜(斥倭)와 제폭구민(除暴救民) 및 보국안민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

집강소가 설치된 6월 이후부터 영호도회소는 폐정개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탐학한 관리와 토착세력을 응징하였다. 또한 일본군의 침략이 자행되자, 8월말부터 본격적인 항일구국투쟁에 나서서 민족의 수호자를 자처하였다. 2차 봉기이후 영호도회소의 농민군은 가장 먼저 기포(起包)하였다. 이들의 목표는 경남 서부지역으로 진출하여 일본군의 서진(西進)을 저지하고 나아가 일본세력을 한반도로부터 내쫓려는 것이었다. 이는, 임진왜란 시 전라도 의병들이 진주까지 달려가 왜군과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것과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맞서 일본군은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그들은 정예의 육군과 해군, 그리고 민간인까지 동원하여 영호도회소의 혈로를 막았으며,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영호도회소는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과 양반과 향리 계층의 반민족적 배반행위로 말미암아 붕괴되었다. 그러나 영호도회소가 지향한 민족의식과 평등사상 및 부정과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은 길이 남을 것이다.

제2절 한말의 의병활동과 광양

19세기말부터 일본의 조선 침략이 가속화되었다. 즉, 일본군의 경북궁강점(1894. 7. 23), 명성황후시해사건(1895. 10. 7) 등이 그것이다. 이때부터 시작된 의병항쟁은 1904~5년을 전후하여 격화되었다. 1904년의 한일 의정서(2. 23)와 한일협약(8. 22), 그리고 1905년의 을사조약(11. 18) 등과 같은 일제의 정치적 침탈이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1907년 후반이후 약 2년여 동안 의병투쟁은 가장 격렬하여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일제가 고종의 강제퇴위(7. 19)와 한일신협약(7. 24) 그리고 한국군의 해산(8. 1) 등을 단행하여 한국의 주권을 유린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침탈도 병행되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조선의 국권이 날로 침탈됨에 따라 의병에 투신한 사람들은 더욱 증가하였다.

1907년부터 약 5년간 일본 군경과 교전한 의병의 숫자는 14만여 명이나 되었으며, 190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에만 14,566명의 의병이 일제의 총칼에 의해 살육당하였다. 당시 의병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며, 그리고 의병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전라도 의병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였음은 이미 박은식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⁸⁷⁾ 그는, 각 도별로 활동의 다소를 논할 때 전라도가 가장 많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후일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1908년 일본군경과의 교전회수(交戰回數)와 교전의병수(交戰義兵數)에서 전라도는 각각 25%와 24.7%를, 1909년에는 각각 46.6%와 59.9%를 차지함으로써 박은식의 주장이 입증된다.⁸⁸⁾ 따라서 1907년 이후 전라도의 산간내륙

87)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박은식전서』 상, 1975, p.24.

88) 『한국독립운동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65, pp.294~6.